

## 총선 본격 레이스... 예비후보 역대 최다 몰린다

### #일주\_이슈

#### 내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현역·정치 신인 등 몰릴 경쟁 치열  
尹정부 중간평가 성격 '정권심판론'  
민주,李리스크·당 분열 '민심 싸늘'  
전남 선거구획정 놓고 혼선 불가피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10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인 오는 12일부터 각 지역 선관위를 통해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각 지역구에서는 수성에 나선 현역 의원들과 도전하는 정치 신인 등 입지자들의 몰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예비후보자 등록에서 광주·전남지역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구마다 10명 이상의 후보들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총선은 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데다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방을



오는 12일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각 예비후보자들의 출판 기념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9일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이 책을 구입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판가름 짓는다는 점에서 여야는 사활을 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서진정책' 등을 통해 호남에서 최소 1~2석을 확보해 정치적으로 도전을 마련한다는 목표고,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지역 석권을 바탕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 원내 제1당 지위를 사수한다는 복안이다.

무엇보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중간평가를 넘어 '정권 심판'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한 미

숙한 대응, 세 차례에 걸친 민생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만으로도 민심이 크게 요동치는 분위기다. 여기에 지방재정교부금 대폭 삭감으로 지자체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광주·전남의 경우 쌀값 안정을 위한 양

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에 대한 최악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광주·전남 수성을 노리는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 호재로만 작용할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이 어느 때보다 싸늘하기 때문이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진명-비명간 첨예한 갈등 등으로 인해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광주·전남 정치권 역시 정치적 변방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는 신당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거론되고 있는 신당만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개혁연대 신당 등 4개다. 이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이합집산이 이뤄진다면 지난 2016년 '국민의당' 돌풍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출마예정자와 유권자 모두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은 전남 10곳의 선거구 중 8곳의 지역구를 바꾸는 것이어서 정치권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 6면에 계속  
▶ 관련기사 2·3면 노병하·최황지 기자

## ACC 미디어월, 철거 후 지하광장에 재설치

####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 결정

옛 전남도청 복원 과정에서 철거·존치 논란이 일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미디어월(가로 75.2m·세로 16m)이 지하로 옮겨진다.

옛 전남도청 뒤편 전남경찰국 건물에 설치된 미디어월은 5·18 최후 항쟁지이자

사적지를 가린다는 지적에 철거 뒤 재설치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이하 복원추진단)은 2024년 8월부터 ACC 미디어월을 철거해 지하광장에 다시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ACC 미디어월은 HD급 미디어 철제망에 21x9m, 10x6m 크기의 와이드 스크린

2개를 붙여 제작한 미디어 플랫폼이다. 복원추진단은 철골 구조물과 스크린 2개를 철거할 방침이다.

복원추진단은 새로 제작한 LED 디스플레이(가로 34m·세로 10m)를 현재 와이드 스크린이 설치된 곳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약 10m 아래 지점에 재설치한다. 지하에 위치하게 될 새 ACC 미디어월

은 지하인 아시아문화광장에서는 마주할 수 있지만 지상부에서는 내려다보아야 보이는 구조다.

앞서 미디어월은 광주시가 지난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로 선정된 뒤 ACC가 2017년 26억여 원을 들여 제작했다. 미디어월은 지하에 위치한 ACC와 문화 콘텐츠를 홍보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복원추진단은 미디어월이 5·18 최후 항쟁지인 도청을 가린다는 이유에서 철거 결정을 내리게 됐다. 미디어월이 사

적지를 가리는 장애물이나, 소통 창구냐를 두고 존치 찬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새 ACC 미디어월 운영 시기는 오는 2025년이다. **도선인 기자**

#### 광주사람들 (579/1000)



**나찬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관련기사 7면

## 화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 키즈라라

어린이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 꿈 찾는 진로 체험!  
키즈라라에서 30여가지 직업 체험을 만나보세요!



30여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



꼬마허어로 슈퍼잭과 함께할 수 있는  
**영유아 체험관**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라라 잔디광장**



### 키즈라라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체험

- 즐거운 삶의 문화를 창조하는 항공훈련센터·뷰티살롱 등
- 미디어로 소통하는 TV 방송국·인인 방송국 등
-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공룡연구소·AI 로봇연구소 등
-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쿠키·치즈공방·식품연구소 등
-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경찰서 등



어린이 테마파크 키즈라라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온천1길 35

**T. 1600-7953**